

■ 아프리카 선교소식 : 이석로, 송재은 선교사 2007년 2월 2007년 7월

■ EAPTC / P.O. Box 3774 / Nairobi 00506 Kenya / Tel & Fax: 254-20-2730940 / e-mail: eaotc@eaotc.org / www.eaotc.org

“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 < 119:58 >



사역자훈련원 나이로비 본부 전경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들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동안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덕분에 지난번 소식을 드린 이후로 주님이 많은 좋은 일들을 이곳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교가 확장되고 그에 따른 도전들을 극복해 나

갈 때 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실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더더욱 깨닫습니다.

1월의 목회자연장교육 강의에 이어 2월에는 DR Congo(전 Zaire) 졸업식과 케냐인선교사훈련 강의 등에 이어 3월에는 Namibia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2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Uvira (DR Congo 동부지역) 에서 가진 **DR Congo 사역자훈련원 첫 졸업식**에 James Kamau 목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케냐 Nairobi 사역자훈련원 3회 졸업생인 Bitendelo Ekangyela 전도사님은 콩고인으로서 졸업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참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아무런 재정후원도 없이 묵묵히 사역자훈련원 2곳을 차비가 없으면 120km를 그냥 걸어다니면서까지 운영하며 힘써 가르쳐 배출해낸 7명의 사역자들을 간절히 축복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사역자 훈련원과 더불어, 지금까지 배출된 key leader들과 함께 교회 개척에 증진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DR Congo 정부로부터 몇 주 전 교단 등록증이 나와서 앞으로 더욱 활발한 DR Congo 선교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4월중에 Edward Kinyanjui 선교사 부부와 Philip Mwaura 선교사가 각기 Sudan의 Juba로 또 Namibia의 Windhoek으로 떠났습니다. Sudan과 Namibia 사역에도 주께서 더욱 은혜를 주셔서 번창케 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두 선교사 가정을 성심껏 멘토링하여 보냈습니다. 그동안 **케냐인 선교사 41명**들이 다른 아프리카 지역으로 파송되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신실하게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과 종의 사역을 통하여 이렇듯 주의 제자들이 더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면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또 한가지 감사한 것은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던 **케냐 선교본부의 일부본을 드디어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모든 아프리카 사역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선교센터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부족한 재정사정으로 일단 사역자 훈련원의 연장교육을 위한 훈련원 본관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도하며 리서치를 하다가 케냐 사역자훈련원 본부뿐만 쓰기로는 꽤 적합한 건물을 드디어 4월말에 Nairobi 외각지역에서 찾았습니다. 1/8 에이커에 작은 집 한 채가 지어져 있는 곳으로 좀처럼

만나기 힘든 좋은 값에 흥정이 되어 필요한 서류 조사들을 끝내는 즉시 구입하였습니다. 5월은 이사와 증축으로 심히 분주하게 지나갔습니다. 부지를 깎아 평평케 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해서 담장을 세우고 물을 끌어오고 수도시설 설치, 화장실/수위실 건축 등의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사를 들어가면서 보니 막상 손이 가야할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급한 데로 몇가지 기본 공사들을 마무리짓고 학생들을 받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개장은 8월초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에는 마침 영국에서 이곳을 방문한 Carlo Borghisani 목사님 부부와 John Nzomo 지역경찰서장 그리고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졸업생들 일부가 모여 감격스러운 헌당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몇가지의 주요 증축 공사들이 남아있습니다. 적어도 기숙사로 쓸 방 두개가 더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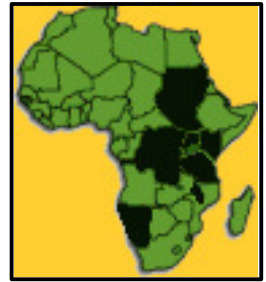
또 신실하게 전개되고 있는 **Malawi 사역**의 Lilongwe 본부 건축을 위해 워싱턴디씨의 어느 성도께서 무명으로 \$10,000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7월 4일부터 일주일간 Malawi 사역지를 방문하여 헌금을 전달하는 한편 나아가 건축 구상을 돕고 또 책임자인 Moses Aringo 선교사 가정을 격려하고 왔습니다. 그곳 책임자인 Moses Aringo 선교사님 부부가 참으로 아름답고 겸손하게 사역해서 2년 전에 다녀왔던 때보다 훨씬 사역이 자리잡혀 있었습니다. Malawi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Zambia 동부 국경 지역까지 사역자훈련원을 시작해서 지도자들을 양육하며 교회를 개척하여,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지금 한창 개발되는 Lilongwe 국제공항 주변에 구입한 센터 부지 약 1/3에이커는 도로변을 끼고 있어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였습니다. 주어진 액수로 교실/사무실 2-3개, 수위실, 화장실 정도는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Malawi 등록청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1년이 넘게 지체되었던 선교회 등록도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Tanzania와 Namibia의 선교부 등록이 아직 미결 상태입니다. 이 나라들에도 **선교부 등록여가가 속이 나올 수 있도록** 아울러 기도해 주십시오.

금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곳 케냐의 시국은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정치세력에 관련된 갱(gang)들이 슬럼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비극이 다시 선거철을 맞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자들은 삼분오열하여 싸우고 있고, 여당은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여 길가는 차량들에게 시비를 걸어 벌금을 걷고 있는 판국입니다. 정말 이 땅에는 어디를 가도 참된 평화와 안식이 없는 것을 봅니다. 부디 케냐가 안정을 찾아서 아프리카의 등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행사 및 기도 제목들

1. EAPTC 목회자/선교사들, 사역자훈련원들, 유치원, 교회들을 위해 (팀웍과 성장을 위해)
2. 7월말경에 있을 Uganda 교단 Mbale 지도자 세미나를 위해서 (이 선교사와 James Kamau 목사 인도)
3. 어린이 사역을 위한 사무실과 센터 유치원 건물 구입(\$50,000)을 위해
4. 8월 한달 간에 있을 교사교육을 위해
5. Nairobi 사역자훈련원 본부 기숙사 증축(\$5,000)을 위해
6. 9월에 있을 선교집회와 졸업식을 위해

요즘에 들어서 **남부아프리카의 Namibia**로부터 **북부아프리카의 Sudan**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종과 종의 동역자들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의 전사들이 남부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하여 북 아프리카 이집트를 통해 복음의 원산지 이스라엘로 복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케냐 동부 아프리카 선교센터 이외에도 북부아프리카와 남부아프리카 지역에 하나씩 선교센터를 확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한다면 아프리카 선교의 확실한 장기적 발판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계속해서 아프리카 7개국(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말라위, 수단, DR콩고, 나미비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선교사들을 위해 물심양면 투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상태로는 각지에 나가있는 선교사들의 생활비 지원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솔직히 좀 갑갑할 따름입니다.



EAPTC 현 선교현황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 순종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희들과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이곳에서의 선교사역은 그야말로 “은혜” 의 행진**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또 장차 이 소명을 완수할 원동력도 바로 다름아닌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이렇듯 소중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전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전고케 하소서. ” (시편 90:17)

무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2007년 7월 17일

아프리카에서 이석로, 송재은, 진규, 현규 드림

■ 선교사: 이석로, 송재은 ■ 파송: 시애틀 한사랑 교회 (☎ 1-253-813-0909) ■ 소속: EAPTC 선교회

- ◎ EAPTC 선교회 미국 연락처 (☎ 703-239-1144)
- ◎ EAPTC 선교회 한국 연락처 (☎ 02-6413-2918)
- ◎ EAPTC 선교회 케냐 연락처 (☎ 254-20-273-0940)

항 아 리

선교사 아내 이야기

부활절을 몇 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난데없이 새벽에 전화가 울려 잠결에 받아보니, 한국에서 걸려온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지난 해 미국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건강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후론 이렇듯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전화벨이 울리면 '혹시나'하며 마음이 철렁하답니다. 그런데 전화의 내용은 옆에서 곤히 자고 있던 남편의 안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이목사'란 분이 나이로비 슬럼에서 강도들의 총을 맞고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듣고 친구가 생각나 염려되는 마음에 전화를 한 것이었지요. 새벽 4시에 이렇게 황당한 전화를 받고 잠이 깨어서는 이곳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일이 어떻게 한국에 벌써 알려졌는지 신기해하면서, 도대체 어떤 분이 사고를 당하신 것인지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이씨 성을 가진 목사님들을 떠올리며 걱정하면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이단이라고 알려진 '만민교회' 소속의 이목사란 분이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는데, 이곳에서도 정식으로 한인 선교사회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단독적으로 일을 하는 교회라 저희들은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하여튼 이 일로 인해 갑자기 한국과 미국에서, 심지어는 케냐 내에서도 이석로 선교사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계기로 인한 것이었지만, 저희들을 생각하고 걱정해 주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든든함과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와 가장 가까워서 사역을 하는 어린이 사역팀의 리더인 에스더 자이오 목사님의 언니이자 우리 사역자훈련원의 졸업생으로 교회개척 사역을 하던 로즈 전도사가 국립병원에서 의사의 오진으로 관한 고생을 하다가 소천하였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케냐 에어의 비행기가 추락하여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 케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이어 일어나는 폭력과 살해사건으로 불안하고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공공연히 정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일종의 마피아와 같은 갱단이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들의 목을 베며 시국을 더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경찰과 군인들이 마을을 점령하여 분명한 증거도 없이 갱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청년들을 무조건 사살하고 있습니다. 매일 신문의 일면을 지난밤에는 몇 명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장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야당이나 여당이나 할 것 없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며 서로를 비난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희생자를 낸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한 대학교내에서의 총격사건도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지요. 이 밖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아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전후해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삶과 죽음,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점점 심각해져가는 빈부의 차이와 만연해가는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의 아프리카 교회와 성도들은 기복신앙에 그 믿음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과 같이 슬럼이나 중하층 이하의 지역을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이 잘못 오해되기 쉽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국사람들에게도 많이 적용되는 현실일까요? 하여튼 기독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물질적인 복에만 치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정도를 가늠한다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는 저이지만, 사실 언제 어떻게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일이지요.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의 선배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다시 읽으면서,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잘 죽기를 준비하는 믿음이란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지만, 만약 남편인 이석로 선교사가 정말 사역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이로비 선교센터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을 모금하면서, 계획처럼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특별히 주위에서 큰 프로젝트를 일사천리로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진행하는 다른 선교사들과 비교하면서, 우린 왜 이렇게 물질 후원이 없나하며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원래 기도하며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사무실을 얻으면서 좀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디씨 필그림 교회의 손형식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소개하실 때마다 "선교를 위해서 젊음을 불태우는 주의 종들"이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은근히 우쭐해 지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들어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젊음과 열정을 무엇을 위해서 불태우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제 안에도 그 몸쓸 '이 땅에서 성공하기'의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프리카 사역 10년을 돌아보며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제가 아니어도 그 분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을 위해 제 삶이 쓰여진다는 것이 정말 은혜이지요. 저를 통해 몇 명의 주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유치원이 세워지는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 숫자가 제가 받은 축복의 잣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 땅에 무엇을 얼마나 남기고 갈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가 될지 모르는 주님과 만남을 위해 이 땅에서의 삶을 성실히 살고 싶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잘 죽을 준비를 하는 순간순간을 살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잘 죽기위한 것이니까요.